

특별기고 - 국민훈장목련장 수상소감

“주님께서 제 인생을 사셨습니다.”

박경옥

성바오로병원 호스피스봉사자

정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을 갖고 활성화하려는 이 시점에, ‘국민훈장목련장’ 수상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가톨릭 호스피스협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이룩한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협회에 힘을 실어주신 것을 제가 대표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큰 영광을 협회와 회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며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1939년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인의 삶을 배웠고 또 어렵게 은인들의 도움으로 간호사가 되었을 때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크리스찬 정신과 나이팅게일 정신을 합하여 간호직을 성직으로 성화시키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소외받는 이들 또 나보다 더 가난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하느님의 은총에 보답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1961년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인 시립병원 결핵요양소와 무료병동에서 근무하던 어느날, 각혈하던 한 환자가 위침에 처했을 때 막 졸업한 신출내기 간호사인 제가 환자의 목에 걸린 핏덩어리를 맨손으로 빼내어 소생시킨 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제가 간호직을 수행하는데 자신감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필자

다. 또 무료병동에 근무할 때는 당시 통행금지 시간이 지나면 경찰백차에 실려오는 행려 환자들을 받아 먼저 목욕탕으로 데려가 머리부터 깎고 목욕시켜 환의로 갈아 입힌 후 간호하던 그 때는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이렇게 실려오는 환자들은 정신이 온전치 않아 거리를 배회하며 쓰레기 통에서 음식찌꺼기를 골라먹고 잠이 오면 길가에 누워 자다가 다행히 경찰에 발견되면 그나마 행운이고 때를 놓치면 겨울에는 죽은 시체로 오게 되어 사후처리 후 바로 영안실로 안치시켜야 했습니다. 가끔 동료간호사가 이런 일을 힘들어하면 제가 대신 지원하여 정성껏 그들을 간호하다보면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면 제가 처음 간호사 되었을 때 주님과 약속하고 다짐한 것을 생각하며 힘을 얻고 새롭게 시

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965년과 1970년 두 차례 서독에서 근무할 때는, 당시 우리 모두가 가난하여 돈벌어 잘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낯선 곳에 갔지만 그들이 중국이나 일본은 알면서 한국을 모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한국이 5000년 역사를 지닌 나라사량이 극진한 단일민족이고 고유문자와 언어가 있다는 것 등 한국을 알리는 데 열을 올렸고 한국간호사들의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1974년 귀국하여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에 근무하면서 당시 의료보험제도가 없어 중증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기퇴원(DAMA)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안타까워 이런 환자들을 미리 파악하여 별도의 차트를 만들어 주치의와 면담하여 뜻 있는 간호사들을 모아 퇴원 후 가정방문간호를 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일, 또 병원의 위치가 그 유명한 청량리 588번지 우범지역이라 밤이면 언제나 힘센 깡패들이 응급실 앞에 서성거렸고, 누군가가 아프거나 싸우다 피 흘리며 응급실을 찾게 되면 무조건 "과장 불러내라"고 소리지르며 차트, 전화기, 의자 등 손에 잡히는 대로 던져 다칠 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 피했지만 다른 환자나 가족들을 보호해야 하니까 피하기만 할 수 없어 주님께 의지하고 용기를 내어 그들 편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비상금을 넣고 다니다가 필요시엔 접수도 해주어 신속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그들도 차츰 마음을 열고 저를 누님 또는 어머니라 부르며 특별히 찾아와 인생상담까지 하게 되었을 때 저는 하느님께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양 성나자로마을과 양평 성나자로마을을 방문하여 환자들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검사 등 간단한 치료를 해드린 후 준비해 간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정을 나누고 놀다가 늦게 돌아왔지만 피곤함보다는 오히려 즐거웠고 행복함이 더 컸습니다.

호스피스와의 인연은 성바오로병원에 근무할 당시 강남성모병원에서 제 1차 호스피스교육을 받고 1988년 성바오로병원에 호스피스과가 신설되어 산재형 호스피스를 체계적으로 시작 할 때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남은 귀중한 시간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또 모진 통증과 싸우며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렸나? 왜? 하며 하느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바로 이분들을 도와야 하는 일에 불리움을 받았다는 강한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35세 된 자궁암 말기환자는 남편 때문에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이라 생각하고 남편을 미워하며 퇴근하여 늦게 병실에 찾아오면 눈을 감거나 돌아눕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우리 호스피스 팀은 집중적으로 그녀와 남편을 돌봄으로써 환자가 질병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여 오히려 남편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대세를 받고 죽음을 수용하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호스피스 팀의 기도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하느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저녁 늦게 남편이 찾아와서 감사인사와 함께 자신도 천주교에 입교하겠다고 하여 거주지 본당수녀님께 연결시켜주고 몇차례 전화로 사별가족 상담을 하던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즐겁고 저에게 남을 돕는 일을 하도록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36년동안 간호사로 일하며 23년을 성바오로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병원의 이념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직원들의 영성교육과 원목활동 그리

고 수녀님들의 영적지도가 저를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셨고 간호직을 성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일터를 주셨습니다. 잊을 수 없는 수 많은 은인들과 성바오로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드릴 것입니다.

1997년 정년퇴직 후 남편이 1996년 12월 위암과 담석으로 대수술을 받았고 투병중인 남편을 집과 병원에서 돌보며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가운데서도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회원으로서 성바오로병원과 본당 레지오 단원들의 소개로 가정호스피스를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돌보던 63세된 최테레사 자매는 세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남편과 행복한 나날을 지내던 중, 담도암이 간과 위까지 전이되어 대학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고 정규 검사를 받으며 지냈으나, 소화기장애로 음식섭취가 어렵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2002년 12월 재검 결과, “앞으로 3개월 남았으니 준비하라”는 의사의 말을 들은 남편은 고심하다가 부인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렸고 집에서 하루 2~3회 진통제 주사로 견딜 수 없어 여의도 성모병원 호스피스의 전화상담과 외래진료를 통해 집에서 통증관리를 계속하다가, 2003년 5월 28일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여 통증도 완화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신앙 안에서 기도하며 지내다가 예수성심성월에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간호사와 의사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며 하느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다. 이분을 돌보면서 어려웠던 점은 환자 혼자 가톨릭이고 친정은 불교로 가톨릭 전례나 호스피스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했고 딸의 협조로 아버지를 설득하여 레지오마리에 단원들이 계속 방문할 수 있었고 임종 후 연령회의 주도로 연도 및 영결미사와 장지수행으로 끝까지 돌봐 드릴 수 있었습니다.

협회로부터, 제가 국민훈장이라는 분에 넘치는 영예로운 상을 수상한 소감에 대한 원고청탁을 받고 지나온 저의 삶을 돌이켜보니 주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계셨고 저의 삶을 이끄시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호스피스 간호에 초대받고 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누군가에게 제가 도움이 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통해 제가 더 성숙할 수 있었고 하느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아 그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도구임을 늘 기억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호스피스의 선구자로서 막중한 소명을 수행하고 있는 가톨릭 호스피스협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이 있기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가톨릭 호스피스협회와 회원 여러분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